2023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2023 연간 활동보고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2023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2023 연간 활동보고서

2023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Contents

인사말 / 2023년을 되돌아보며 4

재단 소개 6

비전 7
미션 8
조직도 9
연혁 9
함께 하는 사람들 10
2023년 정기이사회 12

01. SDGs 14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TPSD) 16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
반기문재단X스탠포드대학교
청소년 대상 SDGs 기반 학교 18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프로젝트
협력 및 참여 사업 20
영상메시지 25

02. 기후 변화 26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28
반기문재단X대자연
협력 및 참여 사업 32
영상메시지 41

03. 공중 보건 42

BKM Global Health Platform 운영 44
협력 및 참여 사업 45
영상메시지 49

04. 평화와 안보 50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심포지엄(한미동맹: 자유·민주·번영의 가치동맹을 위하여) 52
주한외교단 초청 대화 54
협력 및 참여 사업 56
영상메시지 61

05. 여성과 청소년 62

다문화 청소년 초청 행사 64
협력 및 참여 사업 65
영상메시지 69

06. 부록 70

재단 방문 및 면담 주요 해외 인사 72
반기문재단 기금내역 74
주요 해외 언론 기고문 76

















인사말



반기문 이사장

現) 보다나은미래를위한반기문재단 이사장
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前) 제8대 UN 사무총장

지난 한 해, 반기문재단의 활동상을 '2023 Annual Report'에 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보다 평화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세계시민의 바람에 터잡은 일이기도 합니다.

늘 반기문재단과 함께해 주시고 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문재단은 81억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초국경·초거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연대와 협력에 힘쓰고, 경청과 통찰의 지혜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존과 공영의 질서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였고,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야만적인 약탈과 해상 테러를 자행해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전쟁과 테러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결코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향한 인류의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多者主義를 복원시키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건설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人道主義에 입각하여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작년에 '2022 지구 기후현황보고서'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15℃ 상승해서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는 1.5℃에 근접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3월 19일에 발표한 '2023 지구 기후현황보고서'에서 작년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4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5℃에 불과 0.05℃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들의 턱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인류의 해결책은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여야 합니다. '2050 Net-Zero' 달성을 위해 정책·금융·기술·기후환경 교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국가·기업·세계시민이 대단한 각오를 갖고, 글로벌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위기 극복의 여정에 기꺼이 동행해야만 합니다.

반기문재단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적수천석(滴水穿石)의 자세로 지치지 않고,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참과 격려, 그리고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반기문** 반기문

2023년을 되돌아보며



이봉화 감사

現)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前)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前) 사회보장정보원 초대원장

반기문재단의 '2023 활동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반기문재단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지구촌, 갈등과 결핍이 없는 세상을 우리 모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기문재단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3 활동보고서'는 반기문재단이 세계적 위기에 어떻게 도전하고 응전했는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일상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강연과 언론기고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탄소감소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국제활동에 대해 관심을 부각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전문가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의 구현과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공정을 지키며, '탄소 제로 2050년' 과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탄소 감소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반기문재단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저감 기술발전과 원자력정책 등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는데에 대해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2024년의 지구촌은 전년도에 못지않은 역동적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리라 예상됩니다.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반기문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의지와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에 세계시민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나은 미래를 향한 반기문재단 감사 **이봉화** 이봉화

재단 소개

반기문재단은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세상을 향하여,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더 공정하고 권리에 기초한 세상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우리가 추구하는 지구촌의
미래는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반기문재단은 세계의 그 어느 곳에나,
세계시민 그 누구에게나 있을것입니다.
분쟁과 재해의 현장에서 원인을 캐고
해결의 씨앗을 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
절망의 굴레를 벗기고 희망의
날개를 달겠습니다.

반기문재단은 통합과 소통,
공존과 헌신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재단의 모든 활동에는 지구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의 열정이 담겨질 것입니다.
세계와 함께 세계시민을 위하여,
번영과 협력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비전

VISION

반기문재단은
'갈등과 결핍이 없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반기문재단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세계인의 플랫폼입니다.

지식이 생산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가 교류되는 또 하나의 세상을
탄탄하게 세워 보겠습니다.

포용과 담대함을 날줄과 씨줄로
삼아서 갈등과 결핍을 붙들어 맬
조각들을 끊임없이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역량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의 창출을
주도하겠습니다.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미션

MISSION

반기문재단은 '통합과 소통',
'공존과 헌신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철학과 비전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국내외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의 구현과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학술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에 열정을 바칠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이를 통한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 증진**에 관한 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안겨줘야 할 미래의 비전, 그리고 마땅히 누리게 해야 할 **인권과 권익에 관한 미래지향적 가치정립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다섯째,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국내외 시민단체,
학술단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통하여 인재의 양성과 세계시민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조직도



연혁

2019

03.05	반기문재단 발기인 총회
04.15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설립 허가(외교부)
04.18	재단 등기 완료
05.10	반기문재단 창립 대회
08.05	KINGOLD Group MOU
09.30	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10.30	Boao Forum for Asia MOU

2020

01.28	제1차 반기문평화안보포럼
04.	Broad Group MOU
07.29	상반기 활동보고서 발간
11.30	Redesign our Future (SDGs 5년과 향후 10년의 과제)
12.30	청소년 환경교육 교재 발간 (영문·중문)

2021

01~11	ADB 공동사업
03.19	제2차 반기문평화안보포럼
03~11	반기문 ESG 아카데미
06.	2020연차보고서 발간
06.29	제3차 반기문평화안보포럼
11.23	제4차 반기문평화안보포럼
12.23	정기이사회(7차)

2022

04.19	「BKM Global Health Platform」운영 MOU(고려대학교)
05~12	대학생 기후환경리더 1~2기 운영
08.	제1차 고등학생 SDGs Essay Competition
08.29	청년재단 MOU
10.07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대학생 멘토링
10.20	기후환경 분야 협력 MOU(KEI)
10.27~28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2022'
12.20	정기이사회(11차)

2023

04~12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SDGs 모범학교 인증
04.23	주한외교단 초청 행사
05~12	대학생 기후환경리더 3~4기 운영
07.03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심포지움
09.12~14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2023'
12.20	다문화 학생 초청
12.26	정기이사회(13차)

함께 하는 사람들

고문



김황식 고문
현) 호암재단 이사장
前) 국무총리
前) 감사원장



공로명 고문
現)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前) 외무부 장관
前) 세종연구소 이사



유종하 고문
現) ahed korea 회장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前) 외교부 장관



이동건 고문
現)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前) 국제로타리재단 이사장
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사회



반기문 이사장
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前) 제8대 UN사무총장



김숙 상임이사
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략기획위원장
前) 주UN대사



김영혜 이사
현) 변호사(법무법인 제이)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성욱 이사
현)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안영수 이사
前)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총장
前)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前)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엄기영 이사
現) 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기후환경 회의 홍보 소통위원장
前) MBC 사장



유명환 이사
前) 세종대학교 이사장
前) 외교통상부 장관
前) 주일 대사



유승민 이사
現)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現)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現) 국제탁구연맹(ITTF) 집행위원
現) 대한탁구협회(KTTA) 회장
現)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ISF) 이사장



이상희 이사
現)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명예이사장
前) 국방부 장관
前) 합참의장



정내권 이사
現) 타시켄트 국립경제대학 신기후혁신센터 의장
現) Global Energy Prize 심사위원장
前) UN ESCAP 환경개발 국장
前)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 수석자문관
前) 기후변화 대사

감사



이봉화 감사
現)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前)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前) 사회보장정보원 초대원장

운영위원

(가나다순)

강웅식 운영위원
前) 주멕시코대사
前)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前) 대전광역시 국제관계 자문대사

강천석 운영위원
現) 조선일보 고문
前) 조선일보 주필
前) 조선일보 편집국장

강태선 운영위원
現) 블랙야크 그룹 회장
現)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 이사장
現)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現)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現) 서울특별시산악연맹 회장

권태신 운영위원
現) 김앤장 고문
前) 한국경제연구원장
前) 국무총리실장(장관급)
前) 주OECD대사

김상기 운영위원
現) 예비역 육군 대장
前) 특수전사령관
前) 제42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김성환 운영위원
現) 태재 미래전략 연구원장
前) 제36대 외교통상부 장관
前) 주 오스트리아 및 빈 국제기구대표부대사

김용학 운영위원
前) 제 18대 연세대학교 총장
前) 연세대학교 사회대학장
前) 연세대학교 입학처장

김종섭 운영위원
現) 삼익악기 회장
現)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前) 서울대학교 문리대 총동창회 회장
前)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김종훈 운영위원
前) 제19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前)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

김지용 운영위원
現) 국민대학교 이사장
前) 대한수영연맹 회장
前)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장

김천식 운영위원
現) 제19대 통일연구원 원장
前) 통일부 차관

김형준 운영위원
現)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現)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前)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前) 국회 개헌특위 위원
前) 한국 선거학회 회장

김홍일 운영위원
現)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前)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
前) 제25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손명세 운영위원
現) 라이트펀드 이사장
現)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現) WHO 국제보건규칙 제정위원회 의원

손연재 운영위원
前) 리듬체조 국가대표

송호근 운영위원
現) 한림대학교 교수
現)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 원장
前) 포스텍 석좌교수
前)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안청시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편집위원장
前)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양창수 운영위원
現)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前)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前) 한양대 법전원 석좌교수
前) 대법원 대법관
前) 서울대 법대 교수

오병주 운영위원
前) 국무총리실 차관
前) 서울지검 부장검사

오연천 운영위원
現) 울산대학교 총장
前) 서울대학교 총장

유동근 운영위원
現) 한국방송예술인총연합회 초대 이사장
前) 한국방송연기자협회 23대 이사장
前)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유중근 운영위원
現)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現) 유엔 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 이사장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윤덕민 운영위원
現) 주일대사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前) 국립외교원 원장
前) 대통령 외교안보정책 자문위원

이각범 운영위원
現) KAIST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

이강연 운영위원
現) 한미동맹재단이사
現) 한미협회부회장
現) 한미우호협회자문위원
現) 관세법인 크로스웨이 고문
前) 관세청 차장
前) 재정경제부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이대봉 운영위원
現) 학교법인서울예술학원 (서울예고, 예원학교) 이사장
現) 참빛그룹 회장
現) 재단법인이대웅음악장학회 이사장

임성준 운영위원
現)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고문
前) 주캐나다 대사
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한비야 운영위원
現)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現)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前)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홍성관 운영위원
現) (주)상암에너지 회장

사무국

박일호 실장
現) 경영행정실장
前) 주오클랜드총영사

이병용 실장
現) 기획정책실장
前)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최성주 실장
現) 외교안보실장
前) 주폴란드대사

김봉현 실장
現) 대외협력실장
前) 주호주대사

정태용 디렉터
現)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前) ADB 기후 변화 전문가

2023년 정기이사회



이사장 말씀

이사장으로서 평화와 안보, 인권신장, 기후변화 대응과 SDGs의 이행 등 재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재단이 출범한지 5년차의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이사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는 공익 단체로 자리 매김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참석 이사들의 간단한 소감 및 소회

김숙 상임이사 | 재단의 중국 진출로 재단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며, 재단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김영혜 이사 | 재단의 역할이 전세계에서 중요해진 만큼 저 또한 이사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남성욱 이사 |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타겟층을 설정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 재단의 활동과 메시지를 알리겠습니다.

안영수 이사 |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젊은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후환경, 인성교육에 중점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기대합니다.

유명환 이사 | 지속적인 기부금 확보가 앞으로 재단의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에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하고 있는 행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유의미한 활동을 하기를 응원합니다.

유승민 이사 | 재단 사업 중 청소년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활동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희 이사 | 반기문 이사장이 보낸 5년 동안의 다이나믹한 메시지를 더 멀리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내권 이사 | 내년도 재단의 중국 사무소 개설은 재단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01



SDGs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TPSD) 16
환태평양지속가능성 대화
반기문재단X스탠포드대학교

청소년 대상 SDGs 기반 학교 18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프로젝트

협력 및 참여 사업 20

영상메시지 25

Trans-Pacific Sustainability Dialogue (TPSD)
환태평양지속가능성 대화
반기문재단X스탠포드대학교 (09/12~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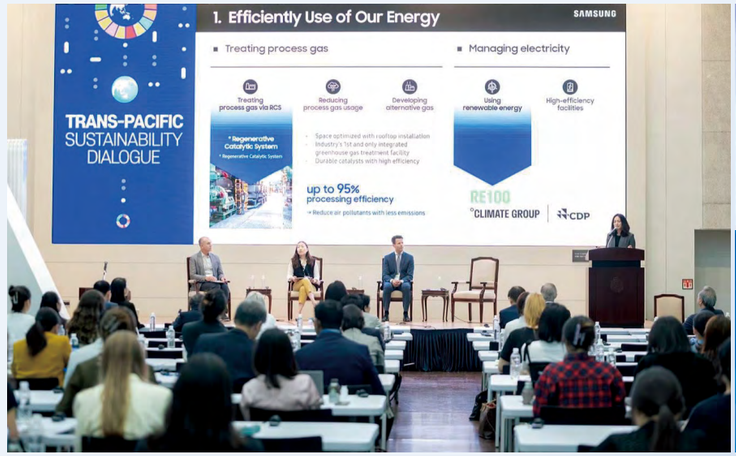
사업 배경 및 목적

-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달성에 대한 아태 지역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반기문재단과 스탠포드대학교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임.

사업 계획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지도자, 학계 및 전문가들 간 담론과 파트너십 추진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 (SDGs)의 이행을 촉진, SDGs 17개 목표에서 글로벌 중점 과제 중 하나를 대화 주제로 설정, 2022~2026년까지 5년간 역내 순회 개최 예정.













사업 내용

- 본 컨퍼런스는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개발 이행 관련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양일간 진행. 반기문재단이 주관한 “세계지도자”, “에너지 위기의 글로벌 상황”, 스탠포드 대학이 주관한 “국제정세와 에너지위기”, ADB(아시아 개발은행)이 주관한 “청정 에너지를 통한 아태지역의 에너지 안보”, 외교부가 주관한 “청정 에너지의 혜택” 세션 진행.

-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적 문제,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 현황, 정치 경제학적 문제와 환경 이슈, 교육과 평등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국내외 학생들의 토론 및 발표 진행.

- “효율적 에너지 기술”,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안보 교육과 에너지평등”에 대하여 학자들과 국내외 학생들의 토론과 발표 진행.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글로벌 지정학적 문제, 정치 경제학적 문제와 환경 이슈, 교육과 평등 이슈에 대한 담론 진행.

- 아태지역에서의 SDGs 및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2024년 컨퍼런스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스탠포드대학에서 개최될 예정.

청소년 대상 SDGs 기반 학교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프로젝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업 무 협 약 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이하 "협약기관")이 힘을 모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념 확산 및 인천을 비롯한 문화예술을 통한 학생의 SDGs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23년 4월 17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 춘 섭 ·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김 숙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 이 정 훈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반기문 지속가능발전 모범학교

본교는 2023년 UN SDGs 기반
학교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서
Goal 12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를 달성한 모범학교입니다.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사업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한 초중고 학생들의 SDGs 관련 이해도 증진 및 교내 SDGs 이행 확산
- 학교,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 전반에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 촉진

사업 계획

-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
-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반기문 지속가능발전 모범학교」 인증서 발급



사업 내용

- 서석중학교, 대제중학교, 덕암고등학교, 경남전자고등학교 등 4개의 비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SDGs의 생활 속 실천을 목표로 한 학생주도형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실행
- 학교별 전담교사, 전문예술가,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유엔 지속가능한 목표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주제로 SDGs 이해 및 행동변화 촉진
- 세부 목표 12.3 (음식물 쓰레기 감축), 12.5 (폐기물 쓰레기 감량)에 관해 연극·합창·음악·동영상·미술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 진행



학생주도형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실행

강원 홍천 서석중학교 (적용분야 : 연극)	충북 제천 대제중학교 (적용분야 : 음악)	전북 김제 덕암고등학교 (적용분야 : 미술)	경남 창원 경남 전자고등학교 (적용분야 : 영화)
순례주택-홍천에서 그린 green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감소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적용 단계를 스토리텔링한 연극 영상 제작, 이를 통해 확산	지구를 생각하는 바른 식생활 실천캠페인 학교 내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노래 작사·작곡, 교내 및 지역사회에 합창 및 결과물 상영 등을 통한 확산 캠페인 실시	바이바이 플라스틱 학교 매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활용한 캠페인 굿즈제작 및 패브릭 천을 활용한 정크아트 활동 등을 통해 매점 폐기물 감소 노력, 결과물 전시를 통한 확산	Tumbl-Lover(텀블러버) 종이컵 사용량 감소 및 텀블러 사용 생활화를 위한 텀블러송 및 영상 제작, 전교생·전교직원·지역주민 대상 캠페인을 통해 확산
가정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 쓰레기 감소	교내 음식물쓰레기 감소	1인당 병뚜껑 수집량 달성	폐기물 쓰레기 감소
-27%	-12%	110%	-37%

협력 및 참여 사업

HKTDC 香港貿發局

제 16회 아시아 금융포럼(AFF) 기조연설 (01/1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은 인류에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함. 금융 및 사업 리더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혁신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함.

User Centric Artificial Intelligence Forum 영상메시지 (01/30)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임. 오늘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AI의 아버지' 위르겐 슈미트후버 박사(Juergen Schmidhuber)가 예견했던 것처럼 개인화된 AI는 더 이상 독점 재산과 기술이 아닌 우리 일상의 일부임. 이번 포럼이 AI를 통한 더 나은 세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를 바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제1회·2회 미래문화예술교육 포럼 축사 (02/27, 05/19)

불확실성과 초국가적인 문제들이 중첩되고 있는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지님. 문화예술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 개개인의 시민력,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음. 이 포럼이 세계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C20 Workshop on Sustainable Resilience and Environment 영상 메시지 (03/08)

모든 국가들은 유엔 글로벌 목표 달성, 기온 상승 제한, 생물 다양성 보호, 적응, 혁신, 자금 조달 분야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 지도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 복원력 회복에 힘을 써야 하며, 이는 세계 시민의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TPG

텍사스퍼시픽그룹(TPG) 글로벌 출자자(LP) 초청 행사 참석 (03/15)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 상태,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난제를 겪고 있음. 기관투자자의 ESG (환경·책임·투명경영) 투자 등이 중요함.





BOAO Forum 기조연설 (03/29)

'불확실한 세계: 단결과 협력으로 도전을 맞이하고 개방과 포용으로 발전을 촉진하자'

글로벌 경제성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함. 글로벌 무역이 탈글로벌화와 보호주의의 물결을 버텨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됨. 세계 성장의 가장 큰 희망이자 활력소인 아시아의 신흥 경제체와 개발도상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를 더욱 끌어올려야 할 것임.

한국도시설계학회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한국도시설계학회 기조강연 (04/2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시 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한 맞춤형 도시정책 및 도시 관리 모델의 발굴이 필수적임. 기후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위해선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리빙랩 (Living-Lab)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KAOSTS

한국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축사 (05/02)

해양, 수중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해양과학 기술은 기후 위기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SDGs 14에 해당하는 최신 연구 내용 발표와 후속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함.



WTCF 世界旅游城市联合会 World Tourism Cities Federation

WTCF Changsha Fragrant Hills Tourism summit 2023 연설 (05/11)

'Gathering the Strength of Cities to Revitalize World Tourism'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관광 산업이 다시 활발해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 빈곤 완화, 성 평등 촉진, 아동의 권리와 이익 증진, 문명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파트너십임. WTCF는 세계 관광 도시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끄는 데에 힘써주길 바람.

MG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축사 (05/24)

새마을금고는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 전 세계 금융소외 지역에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금융포용성 증진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과 빈곤 감소,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에 기여함. 세계 각국의 선진 협동조합 기관들과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모색해 오는 것에 감사하며 더욱 빛나는 새마을금고가 되길 희망함.

The Korea Herald

코리아 헤럴드 창사 70주년 기념 메시지 (05/24)

세계의 안보 및 경제 대결 구조의 심화 속에서, 균형 있는 저널리즘을 통해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를 확산하는 것은 중요함.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지향하며, 환경,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헤럴드의 비전을 응원함.

은평구 Eunpyeong

은평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 기조연설 (06/09)

ESD는 인간의 권리,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세계시민정신, 문화 다양성 등 지속 가능발전 관련 생활양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임. ESD의 질적 발전을 위해 환경교육의 강화, 교육의 불평등 해소, 문해교육, 일자리 창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의 분야에 더욱 힘써야 함.



WCIF World Cultural Industry Forum

세계문화산업 지식포럼 특별 강연 (06/15)

'연계'와 '융합'을 양대 특성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 기술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과학 기술의 진보는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하며, 기술의 첨단화와 함께 인본주의가 강조되어야 함. 또한, 문화산업이 소프트파워의 첨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접근이 필수적임.

통계청

SDG 데이터혁신 포럼 축사 (07/04)

SDGs가 우리 모두에게 제공하는 미래 비전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임. 이번에 개최되는 SDG 데이터혁신 포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함. 데이터와 통계는 SDGs 이행의 핵심 도구이며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람.

외교부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 및 서울비전 선포식 축사 (07/25)

우리는 상호 연계된 위기와 아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도래한 전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통해 강화할 수 있음. 20년간 181개국이 협약을 비준하며 성과를 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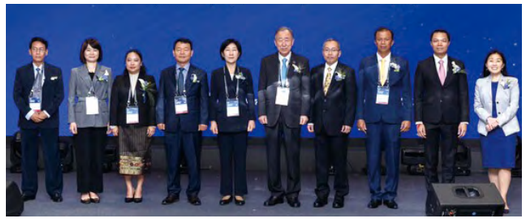
2023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기조연설 (08/21)

우리는 타인에 대한 존중, 관용과 겸손, 배려 등 인간의 기본적 덕목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함. 또한, 종교계는 세계 시민정신을 고취시켜 자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을 떨쳐내고, 지도자들이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함. 전 세계 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 주길 희망함.

K water 환경부

한-메콩 국제 물포럼 기조연설 (09/08)

재정 문제 및 기술의 제약으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과 정책을 모색해야 함. 한-메콩 국제 물포럼에서 메콩 지역 국가들과 여러 선진 국가들, 국제기구를 비롯한 여러 협력기관들이 지혜를 모아 메콩 지역의 물 위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를 기원함.



KEEi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례 정책세미나 축사 (09/25)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원 이후 37년간 청정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음. 이는 2050 탄소 중립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해,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정책에 큰 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당부드림.



SDSN Hong Kong

SDSN Hong Kong Global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23 기조연설 (10/04)

기후 위기, 불평등, COVID-19 팬데믹의 영향 등, 복잡하고 연결된 문제들이 SDGs 달성을 방해하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연대, 포용성, 지속가능성, 혁신, 청년 참여, 이 5 가지 주요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함.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엄청나지만 해결 가능성도 그만큼 크기에, 다 함께 도전에 맞서고 기회를 잡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기 바람.

bonomong

생명존중 기반 공감문화 확산 캠페인 미앤펫 (me and pet) 발대식 (10/06)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함. 개는 똑똑하여 마약과 범죄 퇴치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아동의 정서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도 인구 5000만 중 1500만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처럼, 개를 생명으로 대하면서 존중해야 함.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하나금융그룹

세계경제연구원·하나금융그룹 2023 ESG Global Summit: Big Step for Tomorrow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위대한 걸음 기조연설 (11/02)

국제사회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ESG 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 우려스러움. 기업들이 ESG 경영 자체를 늦춰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3 기조연설 (11/16)

전쟁, 에너지와 식량공급 불안정, 자국 이기주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임. 지구촌의 다자주의 복원 및 여성의 유리천장 해소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함.

행정안전부 UNPOG 인천광역시

제 7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토론회 기조 연설 (10/17)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7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s 국제토론회에 참석함. 아태지역과 유엔 회원국 등 48개국 대표 150여 명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 점검과 목표 달성을 논의함.

COP28 UAE

COP28 Safe Initiative Launch 행사 축사 (12/05)

식량 안보를 COP28 논의의 중심에 두는 것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복력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 정부와 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협력하여 식량 안보, 기후 위기와 농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다루는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길 바람.

수원특례시 ESCAP

제 8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포럼 영상 축사 (10/2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화는 전례 없는 성장과 경제 발전, 기술 발전을 가져옴. 동시에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재해, 환경 파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함.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이라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지식을 전파하여, 지역 내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함.

aT KFSRF

2023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기조연설 (12/22)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정부는 앞장서서 실효적인 기후 대응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힘을 써 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야 함. 탄소중립 이해당사자인 기업도 당연히 동참해야 함. 국민들이 건전한 생산과 소비에 앞장섰으면 좋겠음.



영상 메시지

SDG Dialogue Forum 3.0, GCED Forum 2023, COP28 Education Day, COP28 Side Event 등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와 개인의 노력을 장려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02

기후 변화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반기문재단x대자연 28

협력 및 참여 사업 32

영상메시지 41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반기문재단 X 대자연



사업 내용

- 반기문평화공원 및 반기문평화기념관에서 개강식과 종강식 개최
- 환경 국제기구 UN/IUCN, NET ZERO, 지구가열화, 미래세대의 역할 등에 대한 글로벌 환경 전문가들의 강의 수강
- NET ZERO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온라인 팀별 토론
- 실천키트를 활용한 NET ZERO 실천활동
- NET ZERO 제안 발표회 및 수료식 진행
- 수료자 사후 프로그램으로 수료자 모임 "The CELDERS (Climate Environmental Leaders)" 프로젝트 진행



사업 배경

- 현재 기후위기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 습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 필요
- 2022년부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과 대자연은 세계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증진 및 글로벌 기후환경리더 양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 '반기문 제 8대 UN사무총장과의 만남', '글로벌 환경 전문가의 강의' 등을 통해 범세계적인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후환경리더로서의 비전 함양
- NET ZERO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 양성





사업 실적

1기 2022.05.01–2022.07.31
기후환경 리더 배출 150명
대학 78개

2기 2022.09.15–2022.12.15
기후환경 리더 배출 100명
대학 56개

3기 2023.05.01–2023.07.31
기후환경 리더 배출 100명
대학 65개

4기 2023.10.01–2023.12.31
기후환경 리더 배출 100명
대학 57개

3기 참가자_ NET ZERO 우수 제안

NO	이름	대학명	학과	키워드	발표주제	
1	전예린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시민실천	틱톡에게 부탁합니다	대상
2	심동준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기독교문화	정책제안	친환경 마일리지 Forest	최우수상
3	임소정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 중어중문학	캠페인	3S 캠페인	우수상
4	이지민	한림대학교	사학/ 기후변화융합	정책제안	탄소중립의 선도주자! 국군기후전략기획실	우수상
5	황의현	유타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정책제안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소비	장려상
6	이서홍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에너지	로컬에너지와 CF100을 이용한 선순환 사회구조	장려상
7	박성현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공학/ 저탄소그린에너지	에너지	SMP 상한제 개선	장려상

4기 참가자_ NET ZERO 우수 제안

NO	이름	대학명	학과	키워드	발표주제	
1	이영주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글로벌환경경영학	그린캠퍼스 (음식)	지속가능한 기숙사 식생활: 지역 사회 연계. 학생 자치를 중심으로	대상
2	유가영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과	그린캠퍼스 (의류)	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류 소비 제안	최우수상
3	김한솔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탄소세	무임승차자 없는 기후해결: 탄소세일과 탄소세 도입	우수상
4	손수정	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	시민실천	자전거 분담률 향상 프로젝트 Bike Shift: 출퇴근을 자전거로 바꾸다!`	우수상
5	손유희	명지전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폐기물	친환경 팝업스토어 폐기물 처리 법안	장려상
6	박민정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에너지	지방 도시와 상생하는 한국형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장려상
7	박지혜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경제학	친환경 여행	새로운 여행 트렌드, 친환경 여행 Green Trip	장려상

프로그램 수료자 향후 진로(사례)

기수	이름	향후 진로
1기	김현희	WFK청년중기봉사단 (KOICA그린봉사단) 이집트 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7) 참석
2기	주채현	KOICA NGO 봉사단(기후환경분야) : 방글라데시 환경 NGO 근무
2기	김한나	KOICA NGO 봉사단(기후환경분야) : 방글라데시 환경 NGO 근무
4기	안현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10기 인턴 근무

사업 개요

대학생 기후환경 리더 양성과정은 반기문 제 8대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기후변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탐구하면서, 미래세대 환경리더로서 꿈과 비전을 품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UN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지식 함양 기회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학생 기후환경 리더로서의 경험과 사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장을 제공함.

종강식에서는 우수 참가자들이 NET ZERO를 위한 제안 발표서를 발표함으로써 기술, 문화, 플랫폼, 그린 캠페인, 경제, ESG 등 환경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도출함.



수료자에게는 수료자 모임 “The CELDERS (Climate Environmental Leaders)”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CECR (Climate Environmental Campus Rankings) 프로젝트를 전개하도록 하고, 수상자에게는 기후환경 자문위원으로서 양성과정 제안 및 토론활동 멘토링에 참여하는 등 환경 프로그램 자문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협력 및 참여 사업



GGGI Ministry of Environment

GGGI와 스리랑카 환경부 협약 관련 스리랑카 방문 (02/07)

스리랑카 환경부 장관은 향후 10년 이내에 시행될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반기문 이사장에게 제출함. 이의 결과로 스리랑카의 재생에너지 부문, 대중교통 부문, 발전 프로젝트 및 태양 에너지로 구동되는 가로등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스리랑카의 재생 에너지 부문, 대중교통 부문, 발전 프로젝트 및 태양 에너지로 구동되는 가로등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고양시

기후변화를 향한 인류의 도전 특별강연 (03/14)

기후 위기는 전 인류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전쟁보다 중대한 사안임. 전 인류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함.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100%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

WWF

제 4회 Climate Action Conference 축사 (03/2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국제 사회의 상호 연계를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간 부문과 정부 및 UN과의 협력이 중요해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해결 방안을 결단력 있게 실행해야 함.

KEI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특별연설문 (03/29)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난 대대적 혁신이 필요함. 한국환경연구원은 국제적 지식 교류 활성화와 환경 정보의 국제적 확산, 국제 환경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혁신에 기여하고 있음. 'Korea Environment Institute'를 넘어, 'Global Environment Institute'로 불릴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환경 싱크탱크로 일취월장해 나가기를 기대함.

AIM for CLIMATE

AIM for Climate Summit 축사 (05/09)

악화되는 기후위기는 갈등, 건강, 식량 부족 등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소규모 농부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을 대화의 중심에 두고 함께 행동해야 함.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여 식량시스템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함.

계명대학교 특강 '세계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대학의 역할' (05/10)

기후 위기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임. RE100, ESG 경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의 공동 대응을 끌어내야 함. 타인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세계시민으로서 기꺼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길 바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국가녹색기술연구소 1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축사 (05/11)

한국은 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만 할 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구실을 해야 함.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전 세계 기후 기술 정책을 이끄는 싱크탱크로 거듭나길 응원함.

자연친화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EON

제천시 특별 강연 (05/18)

'글로벌시대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지자체의 역할'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로, 정부·기업·시민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함. ESG는 이제 경영의 필수조건이자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만큼, 지자체도 ESG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람.



포항시

ESG 전인적 세계시민위크 2023 기조 연설 (06/04)

포항은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ESG 전인적 세계 시민 도시'를 선포한 도시임. 이곳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ESG라는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훌륭한 협력자와 투자자를 만나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를 희망함.

RELX SDG Resource Centre

RELX Inspiration Day 기조 연설 (06/13)

기후 변화는 생물다양성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자연 손실의 주요 원인을 다루는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이 필요함. 그리고 이는 글로벌 리더, 정치가, 과학자 및 연구원 등 협정에 명시된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행해야 할 공동의 목표임. 우리가 모두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고, 이 자리에서 토의되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희망함.



한국국제경제학회 KIEA

제46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 (06/27)

'글로벌 복합위기 하의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과 지속가능발전'

우리는 현재 기후변화라는 용어 대신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음. 파리기후협약의 2030 목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함. 특히 국제기구와 각 나라, 민간 시민단체, 경제 및 정책전문가 모두가 파트너십을 이뤄야 함.

연천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특별 강연 (0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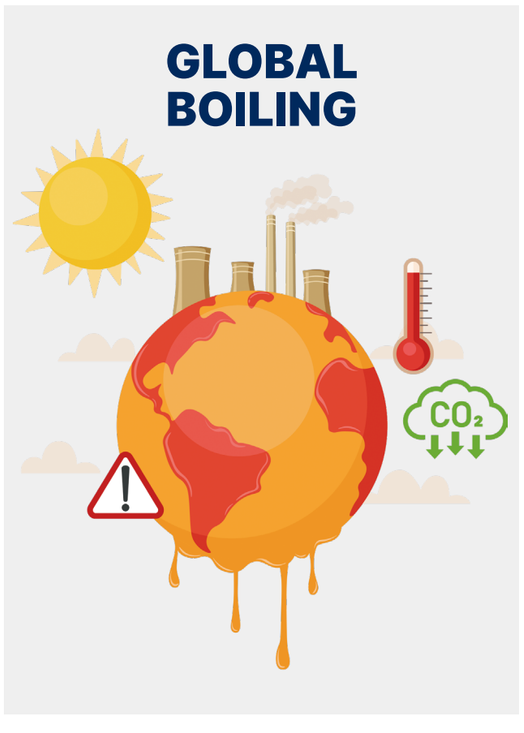
'우리나라 안보와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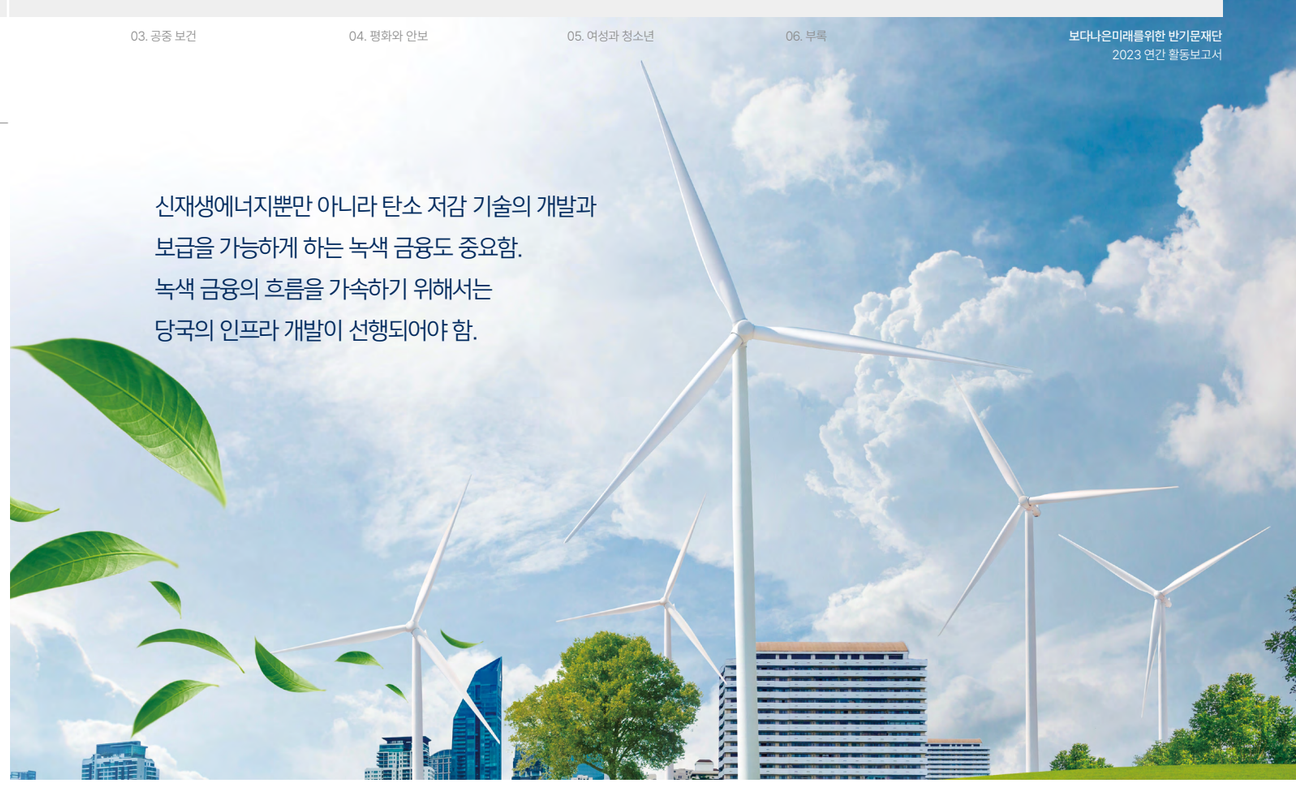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탄소 제로화가 우선 되어야 함. 연천은 평화 안보의 핵심지역이자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이 있는 자연의 도시임. 지역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기후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는 청정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함.

The Climate Reality Project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리더십 교육행사 (08/19)

지구는 현재 지구온난화를 넘어 펄펄 끓는 상황임. 이대로 가다간 약 6억 500만년 전 생명체가 대멸종했던 것처럼 인류도 멸종할 수 있음. 지구와 자신을 위해서 인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후 위기에 힘쓰지 않으면 당신을 뽑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낼 때임.





환경부

Korea Global Adaptation Week 축사 (08/30)

"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의 확대와 변혁"

2023년 11월에 열릴 COP28을 석 달 앞둔 현시점, 적응 주간의 대화에서 "적응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for Adaptation)"의 도래가 시급함. 기후 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은 상호연관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파리기후협약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 또한 가속화되어야 함.



The Amazon and New Economies International Conference 기조연설 (08/30)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이미 가지고 있음. 이제는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함. 우리에게는 'Planet B'가 없음. 기업, 사회, 환경 시스템이 협력하여 더 큰 기후 비극을 예방해야 함.

금융감독원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Change the World with Green Finance 축사 (08/31)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극심한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음. 미래에 있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함.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가능하게 하는 녹색 금융도 중요함. 녹색 금융의 흐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인프라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FPCI GLOBAL CITIZEN

G20 Global Town Hall with Global Citizen and FPCI 기조연설 (09/02)

기후 변화는 전세계적인 기아 위기를 부추기고 있음.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농업 연구와 혁신을 통해 이들을 지원해야 함. 또한, 현재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기후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 시급함.



African Union

Africa Climate Summit 2023 개회사 (09/04~09/06)

아프리카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게 기여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장 큰 지역임.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위기이지만, 그 영향은 특정 국가의 사람들만이 느끼고 있음. 이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음. 아프리카에 대한 정확한 지원 수준을 10배로 늘리는 것이 필수적임.



아프리카가 없으면 녹색 혁명에 동력을 공급하거나 기후 위기와 당대의 큰 도전을 해결할 수 없음.

한·아프리카재단 대한상공회의소

Africa-Korea Business Summit (09/12)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 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 아프리카가 없으면 녹색 혁명에 동력을 공급하거나 기후 위기와 당대의 큰 도전을 해결할 수 없음.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리카-한국 비즈니스 서밋'은 훌륭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임. 오늘 이 자리가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람.



febc 극동방송

제55회 극동포럼 강연 (09/18)

그동안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때임.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체되고 세부 목표가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아야 함. 그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함.



매일경제 MBN

제24회 세계지식포럼 기조 연설 (09/21)

기후변화가 인류를 위협하면서 ESG는 세계적인 흐름이 됐음. 앞으로는 기업도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행정·민간이 함께 동반자 정신을 갖고 지식과 재정적 자원을 공유해 대응해 나가기를 바람.

고려대 공과대학 설립 60주년 특별강연 (10/19)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가 18.5℃인데, 이것이 20℃가 되면 지구에 '제6차 대멸종'이 도래할 것임.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는 G7에 근접한 한국부터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함. 특히, 국내 제조기업들은 전 세계의 탄소중립 '스탠더드'에 맞춰 배출량을 줄여야 함. 개인 차원에서는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을 아껴서 쓰고, 불을 잘 끄는 습관을 들여주길 바람.

연세대학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 특별 강연 (11/01)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주관 강연에서 반기문 이사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정한 지구 온난화 마지노선까지 0.35도 남았다며 기후 위기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함. 기후 위기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타개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임.

우리들의미래 2050 탄소중립위원회

그린 빅뱅 프렐류드 2023 축사 (11/07)

COP28의 전지구적 이행점검에 앞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향한 국가적 차원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봄. 에너지와 산업은 물론 기술과 금융, 기후 스타트업과 교육, 글로벌 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기후 행동을 Scale-up, Speed-up, Level-up 하자는 이번 그린 빅뱅 서밋의 취지에 깊이 공감함.

NET ZERO 2050 CLIMATE FOUNDATION

2023 국제 기후 포럼 기조연설 (11/09)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탄소 중립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정치 지도자들의 확실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정책 결정권자들 간 협력, 과학 기반의 기후 위기 극복 노력, 원자력·풍력·태양광 등의 청정에너지 활용 등이 필요함.



경향뉴스 폴리뉴스 | 상생과통일 포럼 | 환경재단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출범 축사 (11/09)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출범을 축하함. 지구와 인류의 파멸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서 정치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많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주시고, 탄소 감축 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 필요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함.

ICAO

제 3회 ICAO Conference on Aviation and Alternative Fuels (CAAF/3) 기조연설 (11/20~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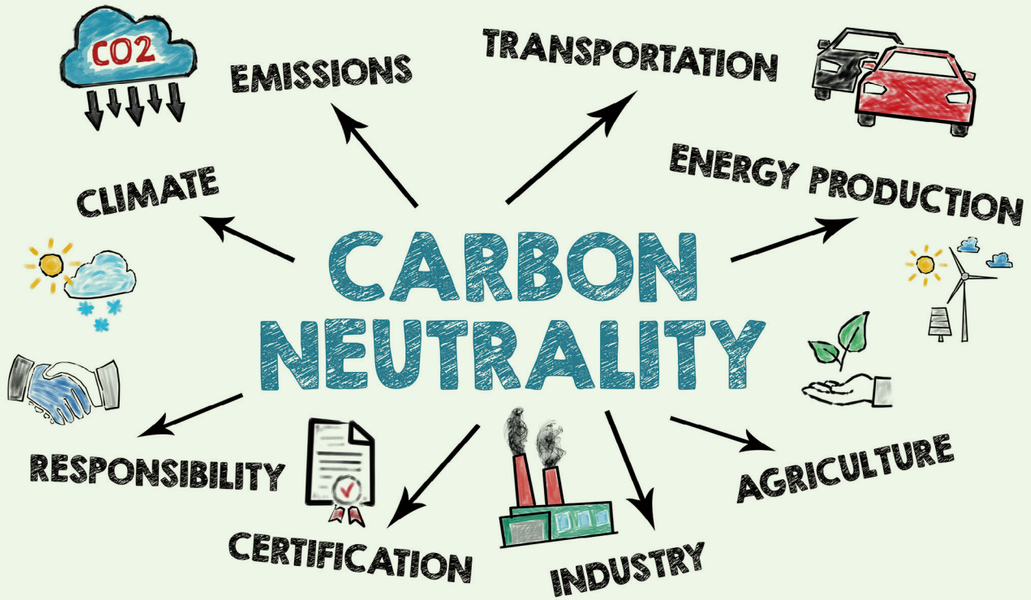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행한 '국제항공탄소상쇄 ·감축제도(CORSIA)'는 사상 최초의 글로벌 부문별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로, 2024년 1월부터 126개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ICAO 회원국들은 지난해 41차 총회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배출량을 달성하는 '국제항공 탄소 감축 장기목표(LTAG)'를 채택함. 항공 및 대체 연료에 관한 제3차 ICAO 총회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가져오길 바람.

환경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넷제로 LDN 포럼 기조강연 (11/23)

최근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UNCCD)과 관련하여, 토지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의 중요성이 점차 더 강조되고 있음. 산림과 토지의 황폐화 방지는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UNCCD가 2015년에 채택한 토지 황폐화 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COP28 UAE

Signing letter to COP28 calling for levy to help fill loss and damage fund (11/28)

반기문 이사장, Gordon Brown 전 영국 총리, Helen Clark 전 뉴질랜드 총리 등 25명의 전직 정상을 포함한 국제인사들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산유국들에게 250억 달러의 기후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기후 피해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함. 이 서한은 Al Jaber COP28 의장과 현재 G20 의장인 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에게 발송됨.



2023 Local Adaptation Champions Awards Ceremony (11/30)

오늘날 지역 적응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에 처한 공동체의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한 현지 주도의 노력을 의미함. 폭염, 가뭄, 산불, 홍수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지역 적응 챔피언 시상식은 지역사회가 기후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방법과 사례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COP28 UAE

COP28 축사 (12/01)

이번 COP28은 처음으로 '디지털 탄소중립'이라는 안건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이 중요함. 또한 디지털 시대를 추구하면서 디지털 시대 이전의 역사적 기후 정보를 통한 기후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야 함.

SNU ISD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부

2023 국제 대학생 환경포럼 기조연설 (12/04)

이번 국제 대학생 환경 포럼의 주제는 '세계시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임. 청년들은 더 이상 기후 대응의 가장자리가 아닌 기후 문제의 중심에 서서 확실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

KEI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Green Korea 2023 Environmental Forum 축사 탄소중립 도시 개척: 지역 주도의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전략 (12/13)

기후변화는 국경과 지역 상관없이 발생하는 심각하고 긴급한 세계적 문제임. 이번 포럼이 탄소중립도시 구상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람.

용인르네상스

2023 제 2회 탄소중립 명사 초청 특강 (12/05)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화하면서 지구온난화의 개념이 사라지고 '지구 가열화'라는 개념이 새로 생김.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 의무가 법제화된 만큼 이제는 개개인이 생활 습관과 태도를 바꿔가며 실천해야 할 때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후 위기부터 극복해야 함.

KISTEP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동주최 포럼 축사 (12/13)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함. 오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2050 넷제로 달성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영상 메시지

The 2nd Forum on Carbon Neutrality, 광주 친환경 미래차 비전선포식, Global Water Changemaker Awards, Road to COP28 in the UAE GCF 본부 송도 유치 10주년 기념식 축사 등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함.



03

공중보건

BKM Global Health Platform 운영 44
협력 및 참여 사업 45
영상메시지 49

BKM Global Health Platform 운영

Platform for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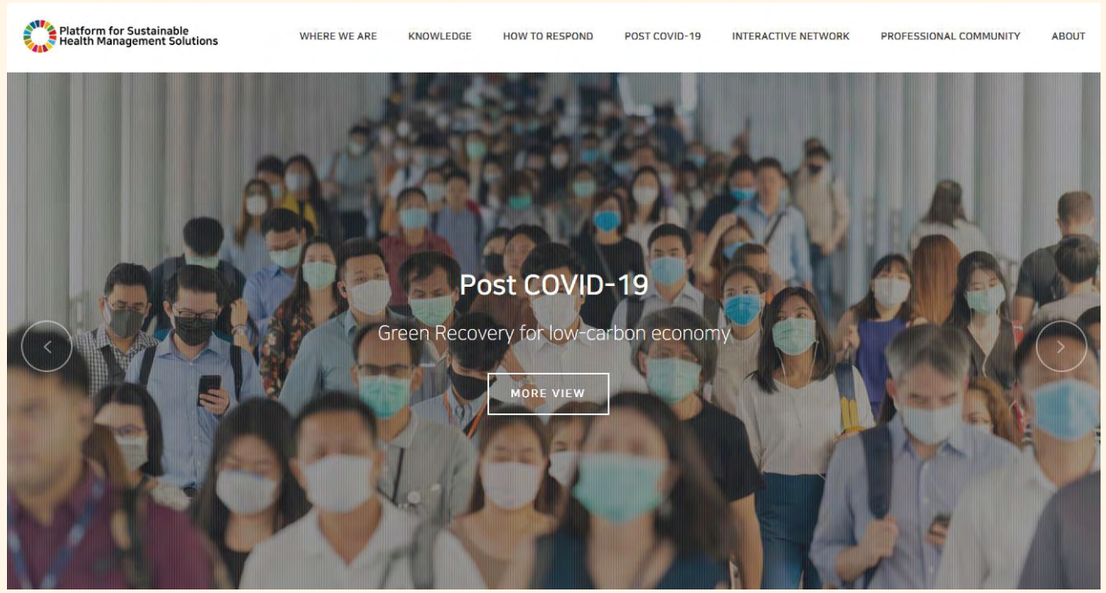
플랫폼 운영 사업 배경 및 목적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의 협력사업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Platform for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Solutions' 웹사이트 플랫폼 모형을 개발.
- 고려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운영 및 관리 유지하며, 감염병 대처 등 Global Health에 기여함.



사업 내용

-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등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BKM Global Health 플랫폼 활성화 구현.
- 신종 감염병과 팬데믹을 예측하고 대비해 글로벌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 플랫폼에서는 국제기관 및 교육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Covid-19 현황을 비롯해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략과 전망, 국제보건규칙 개선 방향과 ICT 기반 대응 시스템 등의 최신 정보 제공.
-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하는 의료 학교의 교육 역량 혁신"이라는 ADB T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E-러닝 플랫폼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과 학습자료로 공유.



협력 및 참여 사업

스리랑카 태권도 용품 및 장비 후원식 (02/03)

반기문재단은 MTA 태권도의 '태권도 저개발국 발전 및 저변 확대 지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엠티에이태권도와 함께 총 1억 원 상당의 태권도 용품 및 장비를 현물로 지원함.



튀르키예 대사관 방문, 지진 관련 애도록 서명 (02/11)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반기문 이사장의 대사관 방문 사실을 알리고 튀르키예 대사관 애도록 서명에 감사를 표함.

한국노인복지연합 출범 및 노인복지신문 창간 축사 (02/16)

노인복지신문은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과 복지 현장의 실태에 대해 바른 주장을 펼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 추구에 크게 기여했음. 대한민국의 노인 모두가 노마지지(老馬之智)의 지혜와 경험을 갖춘 어른으로서 충분한 존경을 받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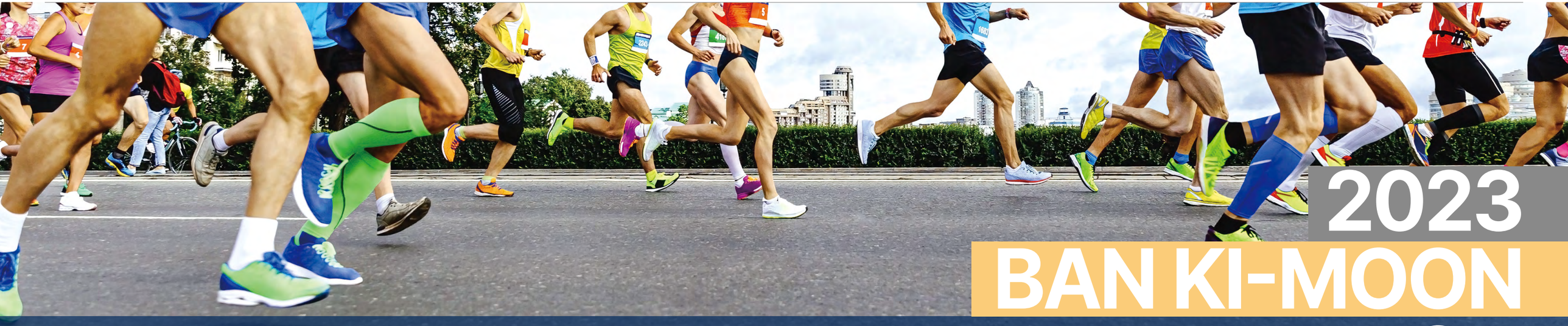
서울종합방재센터 설립 21주년 축하 영상 메시지 (03/22)

최근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건물 잔해에 깔려 스러져가는 인명을 구조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음. 대한민국의 소방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길 바라며, 동시에, 때로는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길 바람.

국민대화합 한마당 발표회 축사 (04/28)

3년 넘게 지속되었던 코로나 19가 끝나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환율과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은 또다시 시련에 직면함. 이번 콘서트가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2023 BAN KI-MOON MARATHON

음성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전국에서 총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음.

제 17회 반기문 마라톤대회 참석 (04/30)

음성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전국에서 총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음. 반기문 이사장 내외도 참여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퍼포먼스에 참여한 뒤 참가자들과 함께 5km를 달림.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조연설 (07/13)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IAEA 보고서가 일본의 돈을 받고 작성되었다는 허위 의혹 때문에 IAEA 사무총장 방한 시 입국 반대 시위를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이며 국격을 해치는 일임. 국내 문제를 해외로 이슈화 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한 UN 총회로 가지고 갈 경우 과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다수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음.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기조연설 (07/11)

농사회는 신분, 인종, 성별, 장애 등 여러 형태의 차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차성을 지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꼭 다뤄져야 할 논의 주제임. 수어로 소통하고 교육받을 권리는 농인 및 농인 단체, 국제개발기구,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함. 더욱 평등한 농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독자적 문화 공유의 시간인 세계 농아인 대회가 대한민국 제주에서 이루어져 기쁨.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축사 (08/07)

3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19라는 대 유행병은 모두의 고통이었고, 특히, 12억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겪었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참담했음. 이번 대회는 지구촌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전 세계 장애인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이들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

국제의료질향상연맹 (ISQua) 제 39차 세계총회 개막연설 (08/28)

에볼라가 처음 발병했을 당시에는 세계 각국이 조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반면, 코로나 19의 경우, 각국 지도자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보단 서로를 비난하기 바빠보였음. ISQua 서울 총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열리고 있음. 참가자들은 기후 행동을 통해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고 의료진과 환자 안전이 보장되도록 협력해야 함.

Innovations in International Philanthropy Conference 영상 메시지 (09/07-09/08)

여러분은 자선가로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공동의 도전을 큰 기회로 바꿀 힘을 지니고 있음. 자원과 연민, 연결은 우리를 갈라놓는 경계를 넘어, 인류와 지구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음. 또한 여러분이 투자할 때 내리는 대담한 선택은 미래의 지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힘이 됨.

제22차 아시아학술회의 학술대회 기조 강연 (10/19)

생물의 다양성과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은 점점 더 인간과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신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음. 기후 위기와 팬데믹은 동전의 양면이며 본질적으로 상호 얽혀 있기에, 우리는 사회와 지구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다시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번 포럼에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스마트하고 건강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계, 시민사회, 정부가
목소리를 합칠 것을 촉구함.

WORLD HEALTH CITY FORUM

제 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축사 (11/20)

기후 변화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적 원인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까지 보건 분야의 핵심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번 포럼에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스마트하고 건강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계, 시민사회, 정부가 목소리를 합칠 것을 촉구함.

United Kingdom Global Food Security Summit 연설 (11/20)

‘Towards Zero Hunger and Ending Malnutrition’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갈등, 보건 이슈 그리고 식량 안보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 연구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소규모 농업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을 용이하게 해줘야 함.

반기문재단 중국 간쑤성 지진 피해 지역 기부 (12/26)

반기문 재단은 중국 간쑤성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약 100만 위안 ($139,955) 상당의 구호품을 기부함.



영상 메시지

태안 유류 피해 극복 축사 등에서 인류의 제반 활동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일이 인류의 후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인도적 구호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속 봉사할 것을 촉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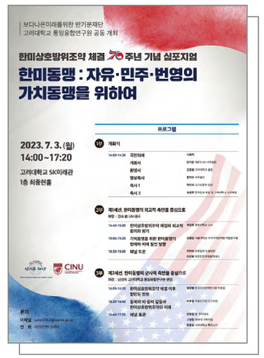
04

평화와 안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52
한미동맹: 자유·민주·번영의 가치동맹을 위하여
주한외교단 초청 대화 54
협력 및 참여 사업 56
영상메시지 61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미동맹: 자유·민주·번영의 가치동맹을 위하여 (07/03)





사업 배경 및 목적

- 보다나은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과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사적 성과를 돌아보기 위한 기념 행사를 기획함.
- 한미동맹의 외교적, 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래를 예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프로그램

- 제1세션: 한미동맹의 외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좌장: 김숙 前 UN 대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외교적 함의와 평가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가치동맹을 위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	**김형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책임연구원)
패널 토론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신화**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

- 제2세션: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좌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원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 안보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동북아 미·중의 갈등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패널 토론	**안호영** (前 주미대사) **구상찬** (제18대 국회의원) **한윤상**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기대효과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폭넓은 이해 증진 및 미래 방향성을 도출하여 권위있는 국내 외교·안보 토론회로 점진적 확대 추진
- 2024년 6월에는 반기문재단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함께 '북한 핵과 4강 외교' 안보 토론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 대응을 위한 전략적 4강 외교 방안을 모색할 예정





반기문 이사장 개회사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흔들린 적도 많았음. 핵무기와 고도화된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신뢰가 금이 가며 합동군사훈련은 중단되다시피 했음. 그런 점에서 지난 4.26 한미 정상회담은 흔들리는 동맹의 중심축을 바로 잡은 중대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함. 우리는 '한미핵협의그룹'을 정례협의체에서 상설위원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전략적이고 유효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임.



김동원 고려대 총장 환영사

올해는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핵심축이자 우리나라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함. 한미동맹은 안보를 중심으로 시작해 경제 파트너십을 거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됨.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과 통찰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에 큰 의미 가지며, 이러한 논의가 쌓여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다져질 것을 믿음.



주한외교단 초청 대화 (04/23)

사업 배경

- 우리 재단의 '2020 활동 보고서'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배포하고 이사장의 영문 회고록 (Resolved: Uniting Nations in a Divided World)이 출간된 이후, 재단에 대한 주한 외교단의 관심 대폭 상승
- 반기문 이사장의 핵심 관심사안인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사업 내용

- 주한 외교단을 지역별, 기구별로 초청, ASEAN, EU 등 지역 단위와 G20, OECD, GGGI 등 기구 단위로 개최
- 반기별로 연 2회 개최
- 2023년 4월,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주한외교단 (부부동반 80명) 초청행사 개최
- 이사장 특별 강연, 참석 외교단 대표 3~4명의 대표 연설, 오찬 및 교류의 시간 등 진행



기대효과

- 반기문 재단 활동에 대한 주한외교단 내 인식 확산
- 2024 반기문 재단 창립 5주년 계기, 재단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을 주한 외교단에 홍보



반기문 이사장 말씀

글로벌 시민의식은 협력, 관용, 공감,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장기적인 비전이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국제적 도전은 전례 없는 수준임. 글로벌 시민정신, 연대, 연민도 또한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뒷받침 되어야함.

조병옥 음성군수 축사

각국의 외교관들께서 음성군을 방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반기문 재단에 감사드림. 오늘의 행사가 충북 경제를 이끌고 있는 도시 음성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협력 및 참여 사업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GEEF) 특별대담 2023 (02/02)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중립자 역할만 하려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임. 국제사회는 반드시 특별전범재판소를 구축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침공자들을 심판해야 함. 우리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국민만 전쟁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임.



Lanting Forum 축사 (02/21)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적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나, 현 전쟁과 갈등 상황에서는 통합은커녕 분열만이 확산되고 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들에게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함.

르완다 학살 29주기 추도식 참석 (04/07)

1994년에 일어난 잔혹한 일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함. 지난 29년 동안, 르완다인들은 커다란 비극을 극복하고 그들의 강한 회복력을 입증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줌. 유엔 평화유지군이 최전선에서 감시하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 이 참혹한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제 4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04/19)

지구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리민복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진력해야 함.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함. 그만큼 우리는 자부심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책무를 가져야 함.

미얀마 공식 방문 및 고위 각료 면담 (04/23-04/24)

반기문 이사장은 미얀마 군부 측의 초청으로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하여 민 아웅 훌라잉 총사령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미얀마의 최근 상황에 대해 건설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함. 반기문 이사장은 아세안과의 5개항 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또한, 군부가 즉각 폭력을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시킨 모든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함.

한국-유엔사 친선협회
Korea UNC Friendship Association

한국-유엔사 친선협회 창립총회 (05/16)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유엔군사령부는 여전히 중요함. 완전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정전협정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임.

제 18회 제주포럼 기조연설 (05/31)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위한 협력'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21세기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두 국가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함. 가치지향적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기반 관계보다 막강함. 따라서 우리는 가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격차를 중재하고, 상호 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시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함.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유엔에서의 한국의 역할 축사 (06/15)

현재 5개의 상임이사국은 국제 평화와 정의라는 가치보단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편적 가치라는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됨. 북한의 핵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국제 평화와 안보 침해 시안에 대해 아무런 공식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것이 개탄스러움.





이스라엘 공식 방문 및 고위 각료 면담 (06/20-06/22)

반기문 이사장은 'The Elders' 그룹의 일원으로 엘더스 의장 Mary Robinson과 함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공식 방문하여 두 국가 원칙에 입각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도자들, 시민 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국제법에 대한 존중에 뿌리를 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해 어떻게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논의함.

태재미래전략연구원 TAEJAE FUTURE CONSENSUS INSTITUTE

태재미래전략연구원 포럼 (07/13)

'디지털 문명, 지속 가능의 길을 묻다'

사이버 왕따, 데이터 유출,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해 아이들과 기업은 물론 사회의 장기적 안전도 위험이 위험에 빠지고 있음. AI 시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한 상황임. AI 개발에 표준을 만들고 이를 감시할 독립적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함.

Ban Ki-Moon's remarks in support of special tribunal for Ukraine (08/22)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은 유엔 헌장의 위반이며, 이의 핵심 원칙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임.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략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별 국제재판소를 설립해야 함. "평화 vs 정의"는 잘못된 표현이며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결정과 조치를 취하기 바람.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60주년 축하메시지 (09/03)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음.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함. 국립외교원의 새로운 60년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람.

평화와 통합의 세계 지도자 국제학술회의 축사 (09/12)

세계적으로 당파적 극한 분열과 대립, 그리고 포퓰리즘이 급증하고 있음. 세계의 지도자들은 분열과 갈등,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행위가 세계를 퇴행과 절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 또한, 김대중 – 빌리 브란트 – 넬슨 만델라 세 분의 사명을 이어나가, 인류의 자유, 천부적 권리,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제1회 인천안보회의 기조연설 (09/18)

전쟁을 예방하는 첩경은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 가장 높은 단계는 가치와 신념을 함께 하는 국가 간 동맹임. 그런 의미에서 한미 동맹은 정말 중요하며,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 특히, 양국의 국내 정치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 이를 위해 자강에 더욱 힘써야 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필요함.

한미연합회 70주년 행사 축사 (10/01)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연합사회(AKUS)가 보여준 공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 AKUS는 2021년 이후 상호 이해와 협력,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미 양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며 흔들림 없는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 옴.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의 토대임. 이 굳건한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3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 (10/17-10/20)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엔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안보리 체제에도 정면 도전하고 있음. 글로벌 도전엔 글로벌 대응이 절실함.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의 대응은 '자유-독재 진영'의 대결 추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움. 안보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유엔총회의 역할과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함.

외교부

2023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 (10/18)

반기문 이사장은 18일 개막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CPGA·Council of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유엔총회의 역할과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함.

국제경찰청장회의 축사 (10/18)

새롭게 부상한 위협들이 전 세계의 경찰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글로벌 경찰 환경도 함께 변하고 있음. 미래의 경찰 전략은 더 사전적이고 글로벌 파트너십과 지속 가능성에 기반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이런 점에서, 이 회의가 강조하는 'Science and Technology', 'Future Specialists', 'Global Solidarity'는 미래의 위협과 싸우기 위한 선제적인 공공 안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NEAR

제14차 NEAR 총회 축사 (10/25)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NEAR의 설립 취지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과 지역 평화"는 소중한 가치임. NEAR와 같은 지역 기구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은 국가 차원의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임.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의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하여 당초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동북아 지방정부를 위한 작은 유엔(UN)'으로 발전하기를 성원함.

IPSA AISP SNU10-10 Initiative

2023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회 회의/서울 국제학술행사 (International Workshop Seoul 2023) 기조연설 (11/03)

오늘날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 근간이 전 세계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음. 이에 맞서 정치학계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함.



한국-유엔사 친선협회 Korea UNC Friendship Association

제 1회 한·유엔사친선협회 세미나 격려사 (11/07)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에게, 북한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의의와 역할, 명예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유효하듯 유엔사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함.

통일부

북한인권과 R2P 국제회의 세미나 기조연설 (11/23)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중요한 사안임. 최근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목도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있었음.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와 함께 일어남. 해당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 안보리에서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할 것을 요청함.

The Elders

바이든 대통령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개서한 (11/16)

디엘더스 소속 전직 지도자 15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신은 역사적 기회를 마주하고 있으며, 세계는 미국이 평화 비전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냄. 미국이 '두 국가 해법' 현실화를 주도할 것을 촉구하며, 공허한 레토릭을 끝내고 극단주의를 약화할 수 있는 '엄중한 평화계획'을 실행해야함.

외교부 CNAS

2023 제 3차 신안보포럼 기조연설 (12/05)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발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하지만, 기술 개발로 인해 도래할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가 됨.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함.



Accepting the Power of One award from Diwali Foundation USA (12/11)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와 같은 위기가 세계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기에, 국제기구의 존재와 의무는 필수 불가결함. 지금처럼 코로나 19 팬데믹이나 지역 간 분쟁과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을 때일수록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추구해야 함.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 주년·노벨평화상 수상 23주년 기념 강연 (12/14)

김 전 대통령의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 인권을 위한 헌신과 국민 통합임.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갈등과 대립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임.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솔선수범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함.

영상 메시지

한빛 부대 10주년 기념행사 축사,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출범 5주년 행사 축사, 제22차 유엔체제학회 축사, 북한인권현인그룹 및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 축사 등에서 평화와 자유,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

05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초청 행사 64

협력 및 참여 사업 65

영상메시지 69

다문화 청소년 초청 행사 (12/20)



사업 개요

- 서울, 경기 지역의 다문화 학생 약 80명을 반기문재단 사무실로 초청하여 반기문 이사장의 격려사 및 사진 촬영, 작은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음.

기대효과

- 다문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지역 및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에 기여
-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지원

반기문 이사장 강연 내용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추억이 되고, 소중한 꿈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람. 청소년 시기의 꿈은 평생동안 힘과 용기를 주고, 자신을 지켜줄 것임. 모두 그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 최대한 지원할 것임.









협력 및 참여 사업

Gems World Academy MUN 연설 (01/27)

전쟁, 기후 위기, 억압적인 정권에 의한 대규모 인권 침해, 식량 위기,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상실, 독재 권력의 부상 등, 전 세계의 사회가 직면한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임.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이들의 열정과 혁신, 리더십이 필요함. 젊은 세대 모두가 열정과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친절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함.

두바이케어와 반기문센터 간 파트너십 체결 (01/28)

'Green Jobs for Youth – Online Training and Mentoring'

극심한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후 위험으로 인해 가정의 생계가 파괴되면 교육은 점점 더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임. 반기문 글로벌 시민 센터는 두바이 케어와 같은 핵심 파트너와 협력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접근성을 확대하기를 고대하고 있음.



2023 UN청소년 환경총회 기조연설 (02/14)

세계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함. 국경을 넘어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연대하면서, 다자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청소년들이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길 기대하며, 많은 지식과 경험을 투자해 기후 위기 극복에 개입해 주길 바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1주년 기념 인사말 (02/23)

질 높은 인성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활동하기를 바람.



The Elders' International Women's Day 축사 (03/06)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얀마, 혹은 예멘인들이 겪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함.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전쟁의 피해자로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임. 여성들의 참여는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평화의 중요한 원동력임. 여성의 능력과 지식을 인정하고 홍보하여,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평화를 창출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KAFSC Legacy Award 연설 (04/28)

성폭력의 트라우마에 맞서 놀라운 힘과 회복력을 보여준 생존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함. 성별 기반 폭력 문제는 기후 변화, 평화 구축 및 경제적 번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 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함. 또한,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함.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함.

충북일보 창간 20주년 포럼 특별 강연 (05/12)

'인재가 경쟁력이다'

젊은 학생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 때문이며 교육이 닿아야 하는 종착역은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임. 전 인류가 지구 사회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길 바라며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 참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마음에 새기길 바람.



청소년 환경 인재 양성 업무협약 (05/15)

음성교육지원청은 반기문재단과 청소년 환경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공동 운영하고, 관내 학생들이 세계적 반기문 이사장과의 특별 강연회 및 대화의 시간, 환경 관련 활동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지원할 예정임.

탄소중립 혁신기술 인재양성 포럼 축사 (05/19)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에서 새로운 사고와 지식,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임. 새로운 사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갖고 한국은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하버드 케네디스쿨 졸업식 축사 (05/24)

젊은 세대가 기후 위기에서 지구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고 긴박하기 때문임. 미래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있음.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맞서길 바람. 정의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내일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승리함.

제28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 축사 (07/04)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 대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해적 퇴치, 북한 인권 등에 대해 다루며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람.

한림대학교 특강 (06/07)

'나의 삶, 나의 소명'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글로벌 시민이 되어야 함. 우리가 그동안 유엔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발전시킨 것처럼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임. 지구를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람. 지도자에게 도전하고 세상을 다르게 만들고,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길 바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 기조연설 (08/17)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의 원천은 바로 교육임. 하지만 최근 들어 교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교사로서의 권위'가 침해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선생이 학생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학생과 선생이 다 같이 존중받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를 바람.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

GGGI

GGGI event on youth leaders at the P4G summit 기조연설 (09/02)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 특히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와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들임. 이 자리에서 동료들과의 토론과 협업을 통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아이디어, 경험 및 이니셔티브를 나누기 바람.

Educate a Child Lecture Series: Lesson From the Field 축사 (09/17)

21세기 교육은 협력, 회복력, 다양성 존중, 성 평등, 인권을 증진하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함양하는 가치관, 기술 지식을 제공해야 함. 오늘 이 자리는 변혁적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뜻깊은 자리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연계점을 찾고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교육부 TV CHOSUN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축사 (09/21)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은 한국 정부가 가진 교육발전, 디지털 전환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임.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 혁신가, 행정가들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세대에서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도전과 해법을 함께 찾고,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람.

UN WOMEN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여성 유엔평화유지군 포럼 기조연설 (09/22)

여전히 대부분 국가에서는 군조직이나 평화 구축 분야를 포함해 의사결정 지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것이 현실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야 함. 포용성, 인권 신장, 번영, 평등 등을 보장하며 성 평등을 촉진하고 평화를 구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람.

THE ART OF LIVING

World Culture Festival 연설 (09/29)

문화는 사람들과 국가들 간의 단결과 조화를 증진하고, 전 세계 시민들 간에 강력한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축제와 평화, 협력, 연대, 파트너십이 필요함. 이것이 우리가 현재 직면한 큰 문제를 극복하는 길임. 우리는 문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굶주림을 막고, 질 높은 교육을 앞당기며, 여성과 소녀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함.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한마당 기조연설 (10/31)

인천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열정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전개해 온 도시임.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은 교육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세계 시민의 일원이 될 것을 당부함.

BAN KI-MOON CENTRE for Global Citizens

Elevating the Voices of Women in Agriculture Champion 2023 (11/30)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된 농업계의 성 불평등은 여성 농업인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세웠음. 이에 'Njieforti Princewill Gana'와 그의 조직 "Sustain Afric"은 지역 맞춤형 해결책을 만들어 농업 분야에서의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기여함. 이들을 2023 EVWA 챔피언으로 발표하게 되어 기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 이주배경 청소년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11/30)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주민 200만 시대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우러져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음. 이주배경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큰 자원임. 민·관·학 네트워크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영상 메시지

MM23 Global Forum, 대한적십자 RCY 창립 70주년 기념 축하 영상, 2023 UN Day, GPE Futures Festival 2023 영상 메시지 등에서 청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함.

06

부록

재단 방문 및 면담 주요 해외 인사 72
반기문재단 기금내역 74
주요 해외 언론 기고문 76

재단 방문 및 면담 주요 해외 인사

03/10



Nambaryn Enkhbayar
(몽골 전 대통령)

04/17



Bakyt Dyussenbaye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04/27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

10/03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

10/19



Peter van der Vliet
(주한 네덜란드 대사)

10/31



Petko Draganov
(주한 불가리아 대사)

04/27



Thomas Bach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05/04



Albin Kurti
(코소보 총리)

06/29



Tanja Fajon
(슬로베니아 외교장관)

08/22



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 페루 대사)

09/14



Mathias Francke
(주한 칠레 대사)

09/18



Amira Agarib
(주한 수단 대사)

11/07



Heinz Fischer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

11/09



Nkubito Manzi Bakuramutsa
(주한 르완다 대사)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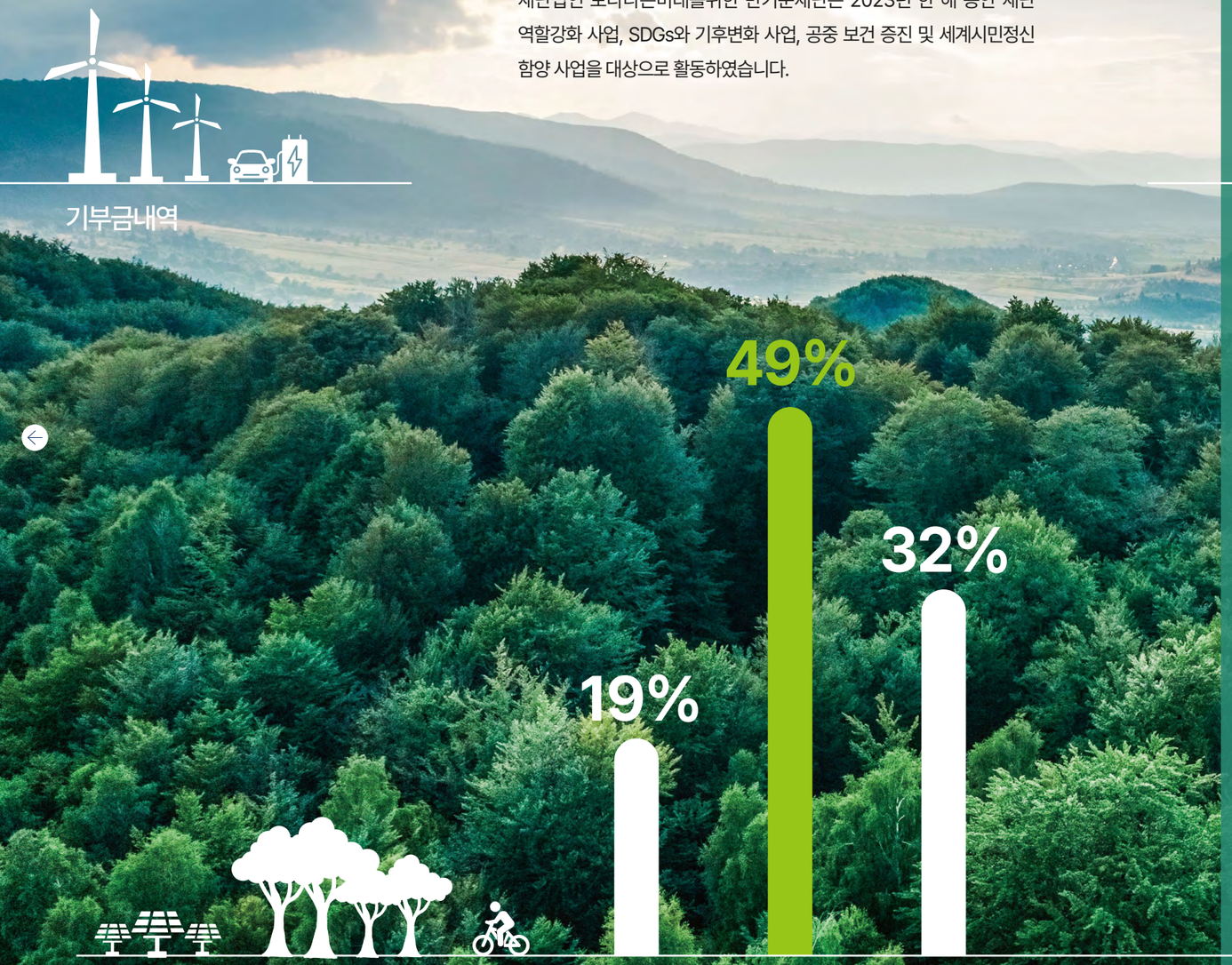


Kristalina Georgieva
(IMF 사무총장)

반기문재단 기금내역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재단 역할강화 사업, SDGs와 기후변화 사업, 공중 보건 증진 및 세계시민정신 함양 사업을 대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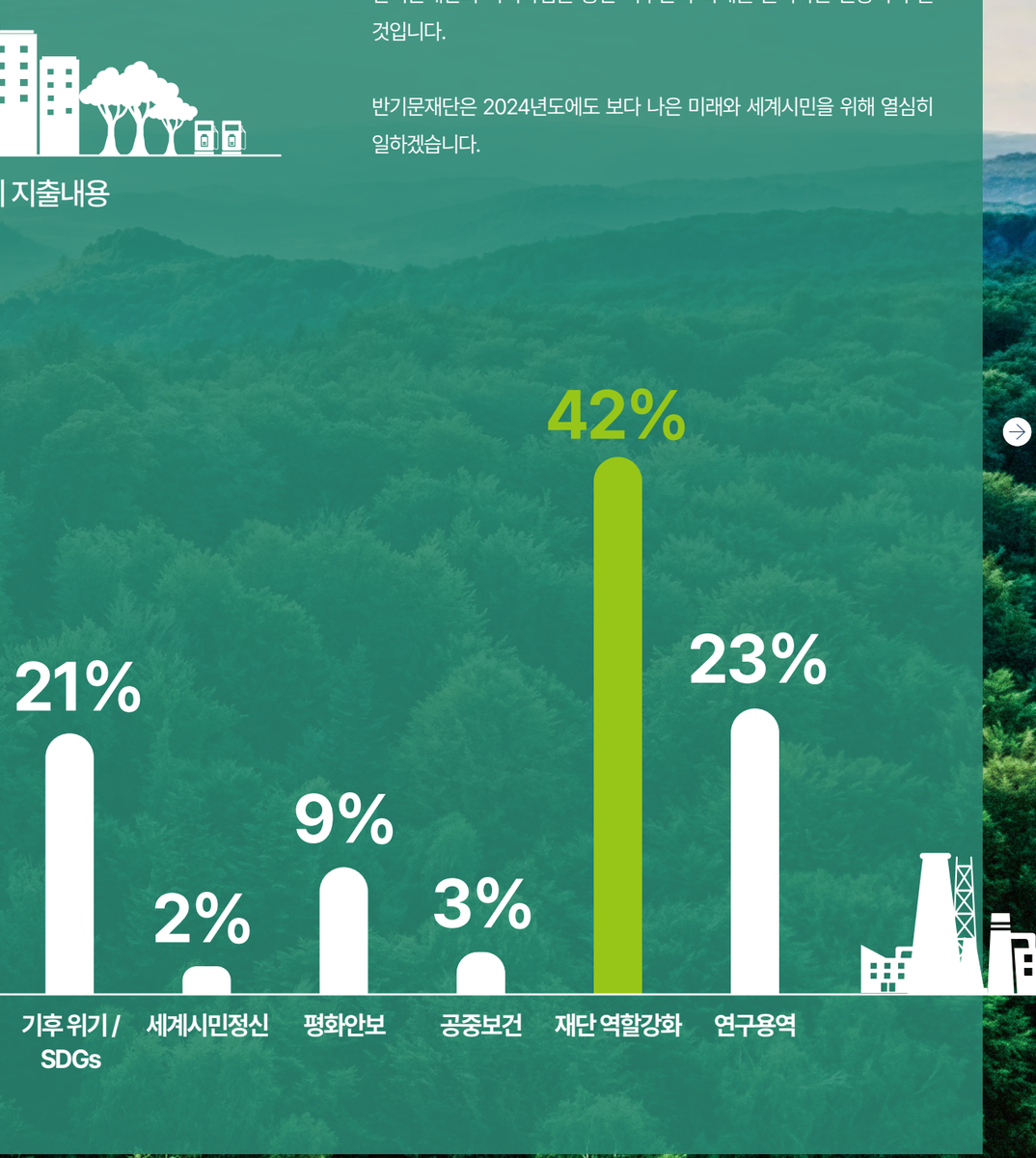
기부금내역



사업비 지출내용

전 세계를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에서 기부하여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반기문재단의 목적사업을 통한 지구촌의 과제를 풀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기문재단은 2024년도에도 보다 나은 미래와 세계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요 해외 언론 기고문

Project Syndicate

2023-02-23

Unity on Ukraine Is Unity on Peace and Justice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 a blatant attempt to destroy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living peacefully within recognized borders – has raised profound questions about the world we want to live in and how international relations should be managed in the future. One year on, the search for answers is even more urgent, and it must involve countries near and far from the war.

Failure to defend the cor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anywhere risks opening the door to autocratic and aggressive regimes everywhere. To live in a world where disputes between states are resolved through negotiations rather than force, we must recognize that the war's challenge to the post-1945 international order affects every country, regardless of political system or alliance. In fact, it is smaller, less powerful countries that will suffer most if the world divides into competing blocs, as it did during the Cold War.

As a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a former president of Colombia, we do not view the war in Ukraine with a European or Western perspective. When we visited Kyiv in August 2022 at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s invitation, we did so as members of The Elders, the group of independent leaders that Nelson Mandela founded to advocate for peace, justice, human rights, and a sustainable future on this planet. As Elders, we are interested in ending wars, not winning them, and we believe it is never too soon to start preparing for future dialogue to achieve a just and sustainable peace in line with the UN Charter.

We look at this terrible war and its consequences through a global lens. We understand that for countries experiencing inflation and poverty because of the collapse of grain supplies and soaring energy prices, defending international norms and holding Russia accountable are less urgent issues than a food-security crisis that is threatening millions of vulnerable people.

Similarly, we understand why, at a time when geopolitical power dynamics have become less predictable, some countries are seeking to balance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in ways they believe will help preserve their futur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many countrie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Western talk about upholding the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ings hollow, given rich countries' failure to distribute vaccines equitab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r to deliver long-promised funding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Still, the response from Asia, Latin Americ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beyond Europe and North America must not be to retreat from international law and universal rights, or to remain neutral toward what is happening in Ukraine. Contrary to what some suggest, neutrality does not advance the prospects for peace; it simply embolden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o persist in his goal of destroying Ukraine, and may encourage similar acts of aggression and territorial expansion elsewhere.

It has been 80 years since the Moscow Declaration, when the wartime Allies committed to "a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peace-loving states." Today, we need a renewed commitment by all UN member states to play their part in reinvigorating an equitable rules-based order that protects and works for everyone, including the least powerful.

Achieving and sustaining a revitalized international order requires fairer systems of global governance and greater consistency in applying the rules. Rising regional powers have a vital role to play – and important choices to make – in this regard. Last year's G20 summit in Bali demonstrated how regional powers like Indonesia can help bridge divisions. Political leaders reaffirmed the centrality of the UN Charter and ensured that the Global South's interests were reflected in the debates and final commitments, such as on food and energy security.

Now, the G20 presidencies of India, Brazil, and South Africa offer an opportunity to build on Indonesia's achievements over the next three years. The current fault lines must not be allowed to obscure the fundamental goal we all share: a world in which disputes are settled peacefully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human-rights obligations.

Restoring the credibility of the multilateral system demands more than ethical leadership and moral consistency. It also requires ambitious reforms to the global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 – a task that must include the thorny issue of reforming the UN Security Council.

We need a system that is fairer, more representative, and capable of taking decisive action in response to grave violations of the UN Charter. As we move toward the Summit of the Future that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has planned for next year, we owe it not only to the Ukrainian people but to all humanity to reject aggression and end impunity for aggressors. That is how we can live up to the UN Charter's promise of a world free from the scourge of war.

By. Ban ki-moon, Juan Manuel Santos

TheJakartaPost
Still bold, fiercely independent

2023-03-17

Indonesia could benefit greatly from achieving net zero sooner



Indonesia's energy transition must balance the needs of the people,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Kevin Rudd, Ban Ki-moon and Muhamad Chatib Basri

Canberra, Australia/Seoul/Jakarta

Kevin Rudd, a former Australian prime minister, is the global president of the Asia Society and convener of the High-Level Policy Commission on Getting Asia to Net Zero, where Ban Ki-moon, a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nd Muhamad

Chatib Basri, a former Indonesian finance minister, are members.

In September, Indonesia joined the small list of countries that actually responded to a formal call to strengthen their Paris Agreement targets in 2022. Then, as host of the Group of 20 Leaders' Summit in November, the country announced a series of new targets, including its aim to reach 34 percent renewable-energy generation by 2030, as well as peak its power sector emissions by the same date and bring them to net zero by 2050.

President Joko "Jokowi" Widodo clearly spoke from the heart when he remarked in his G20 opening speech: "We do not just talk, but we take concrete steps."

Why is Indonesia acting now? One reason is because economics makes sense. In a new report released this week, we on the independent High-Level Policy Commission on Getting Asia to Net Zero unpack why this is the case.

Research we commissioned from Cambridge Econometrics shows implementing Indone- sia's official long-term strategy for achieving net zero emissions by 2060 could boost the country's mid-term gross domestic prod- uct (GDP) by 5 percent and create up to 2 million new jobs by the 2030s. Indonesia's trade balance could also ultimately improve by US$48 billion.

What's more, Indonesia's concrete step forward on climate have already attracted concrete resources.

To help the country achieve its newest goals, a group of developed nations committed during the G20 last November to mobilizing $20 billion over the next three to five years in what is known as the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 ship (JETP). This newest influx of finance complements at least four other schemes that aim to help Indonesia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cluding a plan backed by the Climate Investments Funds that could potentially provide $4 billion, as well as other efforts managed by Indonesia's state-owned infrastructure financing company PT SMI, national utility PLN and the Indonesian Investment Authority.

But the crux is this: Now that money to support Indonesia's energy transition is suddenly flowing, the country faces key decisions in the next few months about how exactly it should chart its course of decarbonization. Making the right choices at this critical juncture could save Indonesia trillions of dollars, help its most vulnerable populations thrive as it decarbonizes and reduce emissions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The evidence suggests Indonesia could significantly benefit from taking more ambitious climate action, sooner. The research we commissioned shows Indone- sia could avoid $3.8 trillion in in-vestment requirements and peak its overall emissions by 2027 if it targets net zero by 2050 while focusing on low-cost solar and wind energy. Adverse impacts on household spending could also be reduced by half in comparison to Indonesia's current net-zero pathway, which relies heavily on fossil fuels paired with expensive carbon-capture technology.

Luckily, the climate finance earmarked for Indonesia created a window of opportunity to seize these benefits, if Indonesia continues apace.

As part of the JETP agreement, Indonesia committed to developing an investment plan by mid 2023. It will also outline a program to support workers and industries affected by the transition. Getting these plans right, along with adopting consistent and transparent policies to support them, will be essential for the money to have the desired impact.

So, what concrete steps could Indonesia consider as it looks to maximize the positive economic, social and climate outcomes of its path to net-zero emissions?

Foremost is to continue reform- ing Indonesia's energy markets to favor lower-cost renewables like solar and wind while putting an end to new coal power. One of the highest-impact measures would prioritize using electricity from intermittent renewables in real- time, while phasing out inefficient subsidies for coal and other carbon-intensive fuels.

Indonesia might also temporarily relax regulations that mandate solar components be produced within its borders. This would ac-celerate deployment in the near- term while domestic suppliers ramp up their capacity to meet Indonesia's renewable energy needs. Together, these reforms could lower investment risk while enhancing long-term GDP.

At the same time, Indonesia could leverage its energy transition to address more immediate development challenges like poverty and inadequate infrastructure.

Revenues from the country's nascent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any repurposed fossil fuel subsidies could be channeled toward social policies, such as through conditional cash trans-fers to vulnerable households. This could shift incentives to ben-efit people rather than entrenched fossil fuel interests, relieve pressure on government budgets and buttress popular support for the green transition.

To make its transition more equitable, Indonesia could also go "all in" on green industries. An ambitious vision could take ad- vantage of Indonesia's critical resource endowments to expand production of technologies needed for decarbonization. For a nation widely expected to become the world's fourth-largest economy by 2050, this would create attractive opportunities to reemploy former fossil fuel industry workers while benefiting Indonesia economically.

As one example, Indonesia already intends to capitalize on its vast deposits of nickel, a key component of electric vehicle (EV) batteries, to onshore EV supply chains. This could reduce Indonesia's emissions by creating a local EV industry while enabling Indonesia to profit from EV exports (that, in turn, help other nations decarbonize).

As manufacturing capacity expands, these so-called green industries can be powered with non-fossil energy and grow, while ensuring critical habitats are protected. This will position Indonesia favorably to attract the growing market of global customers who want to ensure their clean technologies are produced cleanly, too.

Indeed, 2023 is a crucial year for Asia and Indonesia to lead on climate. All eyes will be on Asia as the region hosts the Group of Seven, G20 and the 28th United Nations Climate Conference, and many developing economies in Asia will turn to Indonesia as chair of the ASEAN summit.

The conditions are ripe for Indonesia's leadership to build on its global leadership as G20 host in 2022 by using its own domestic example to demonstrate how green growth can enhance prosperity and livelihoods.Last year, President Jokowi spoke of taking concrete steps. If Indonesia continues to act decisively on climate this year, these concrete steps could instead become tangible leaps and bounds.

TheJakartaPost
Still bold, fiercely independent
2023-04-20

The path to international tribunal on aggression in Ukraine must run through UNGA

By Ban ki-moon

A year after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the search for a credible path towards peace,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harter, is ever more urgent. At the same time, mounting evidence of war crimes and atrocities committed by Russian troops against civilians in liberated Ukrainian territory reminds us that there can be no lasting peace without justice.

On Feb. 24, 2022, the UN General Assembly voted by 141 to 7 for a "peace resolution" that reaffirmed global unity on the core principles at stake: A just and sustainable peace, based on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Turning these words into concrete actions is our collective



Rescuers work at a residential building destroyed after a missile strike in Zaporizhzhia, Ukraine, on March 2, 2023. A Russian strike on an apartment block in the city has killed at least two people, the city's acting mayor said. (AFP/ Ukraine Emergency Ministry Press Service)

responsibility. This is why the world needs to establish a special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crime of aggression in Ukraine. President Putin and others in Russia's leadership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as Nazi Germany and imperial Japan leaders were tried at Nuremberg and Tokyo after World War II.

Such a move is a vital complement to the recent indictment of President Puti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war crimes.

In May/June 2010, as secretary-general of the UN, I attended the Kampala Review Conference of the Rome Statute where a historic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states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 on the defini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More than a decade later, an act of aggression has been committed by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It demands a unified, robust international response, demonstrating to the Russian leadership and autocrats everywhere that the fight against impunity supersedes geopolitical divides.

The ICC cannot prosecute the crime of aggression in Ukraine because Russia has not ratified its founding agreement, the Rome Statute, and the UN Security Council will not make a referral to the ICC given Russia's veto power.

A special international tribunal can close this jurisdictional gap, focusing on the crime of aggression as the supreme international crime that encompasses all the acts and atrocities that flow from it.

Momentum for such a tribunal is building, with more states joining the core group that is working on accountability for Russia's aggression, support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enter for evidence on the crime of aggression in The Hague.

There is an active debate currently underway on the tribunal model that should be adopted. In my view, it will be most effective and legitimate if it can demonstrate broad international support, including from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through a UN General Assembly (UNGA) resolution recommending its establishment.

Some states, including those that publicly champion and defe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may have reservations about the UNGA playing this kind of leadership role on accountability. Others may be concerned that the pursuit of justice could make peace less likely. But I have long believed that "peace versus justice" is a false choice, and that we must pursue both with equal vigor, in tandem.

I believe the best way to hold the top Russian leadership accountable i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ribunal, based on international law and the Kampala definition of aggression as a leadership crime.

The main alternative being put forward – a hybrid Ukrainian/internationalized model based on Ukrainian law – risks being unable to overcome immunities, and could place undue pressure on the Ukrainian government. UN member states around the world should unite behind its efforts to work toward the UNGA-recommended international model.

At the Group of 20 Summit hosted by Indonesia in Bali in November 2022, leaders agreed in the final communique that "it is essential to uphold international law and the multilateral system that safeguards peace and stability. This includes defending all the purposes and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President Putin, his ministers and generals have all shown their contempt for these values by their actions over the past year. The crime of aggression is, by definition, a leadership crime. This must be the focu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of a political leader should not, however, induce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a whole nation and affect international sporting or cultural exchanges.

An international tribunal would deliver on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all UN member states to tackle impunity and defend the essence of the UN Charter. When this issue is put to the UNGA, as I believe it must be, I hope political leaders across the world, from Asia and Africa to Europe and the Americas, will rise to the moment. Endorsing this approach will be a decisive step towards a just and lasting peace in Ukraine and a victory in the battle against impunity.

*** The writer is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nd deputy chair of The Elders.

The Elders

2023-07-06

We must never give up on peace and justice



Dear friends,

Accountability lies at the heart of The Elders' mission to support a peaceful, just and sustainable world for all. Over the past month, we have undertaken a range of activities with accountability at their core, including the visit that Mary Robinson and I made to Israel and Palestine.

This was the first Elders' delegation to the region since 2015, and my first visit back since stepping down a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 must say that I left my visit with a heavy heart.

The region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highest level of violence since the end of the second intifada in 2005, with a series of tragic killings of Palestinians and Israelis taking place whilst we were there. There is a distinct lack of political vision and leadership in Israel, Palestine and among Israel's allies, who continue to revert to a short-term approach. And the 'one-state reality' is now rapidly extinguishing the prospect of a two-state solution.

During our three-day visit to the region, Mary Robinson and I met the President of Israel, the Prime Minister of the Palestinian Authority and a range of other Israeli and Palestinian political leader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foreign diplomats, and former members of the Israeli military and diplomatic service. We also heard from Israeli, Palestini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s about the ever-growing evidence that the situation risks drifting into apartheid.

If the Israeli Government's current trajectory is not reversed, pressure on it to reverse policie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should be increased, with serious enforceable measures for inaction. The Israeli people have the right to live in peace and security and their fears of rocket and terror attacks must be taken seriously, but their Government's policies are exacerbating rather than de-escalating tens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address double standards on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The indictment of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for war crimes in Ukraine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lack of progress on the ICC's investigation into alleged crimes committed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Indeed, there should be no systemic impunity for any violators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 wherever they are.

As Juan Manuel Santos reminded us during his speech at the UN Security Council last mon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better acknowledge and address the links between conflict and the existential threat of the climate crisis. Each cannot exist in isolation from the other: climate change exacerbates threats to human security, while conflict impacts the environment in numerous destructive ways. UNSC member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 or inaction on this pressing matter.

He said, "Despite the desire by som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treat climate change and security as separate issues, in the real world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nd conflict very clearly converge." As he urged, bold leadership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ll be essential in tackling these interwoven challenges.

The links between conflict and the environment were at the centre of Mary Robinson's visit to Kyiv on 29 June as a member of a high-level panel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Russia's war on Ukraine's environment. Mary Robinson travelled with other panel members including the former Swedish Foreign Minister Margot Wallström and climate activist Greta Thunberg for talks with President Zelensky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ecent destruction of the Kakhovka dam and its devastating impact on Ukraine's populati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The severity of these existential threats and the tragic impact of protracted violence in so many parts of the world should compel us never to give up on peace and justice. As Elders, we are resolved to do all we can to drive forwards ethical leadership and solidarity, because people living in conflict deserve better, as does the planet we all depend on.

With thanks for your ongoing support,

Ban Ki-moon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2023 연간 활동보고서

발행인 반기문
발행처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발행일 2024년 4월
편집부 (9기 인턴) 노윤서, 장해민, 전지나
디자인 바이제이디자인그룹(02.717.376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33 내자빌딩 5층 (우:03176)
전화 02-739-9094
팩스 02-739-9095
이메일 bkmfoundation@bf4bf.or.kr
웹사이트 http://bf4bf.or.kr/

※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2023 연간 활동보고서

2023 ANNUAL REPORT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33 내자빌딩 5층 (우:03176) **전화** 02-739-9094 **팩스** 02-739-9095 **웹사이트** http://bf4bf.or.kr/